

투데이 칼럼

효과적인 언어규칙

언어는 사람들이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말들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러므로 화자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서 몇 가지 규칙을 알아보자.

첫째, 단순성이다. 쉬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전을 찾아보아야만 알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은 자기식대로 해석하거나 더 심한 경우는 전혀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는 수도 있다. 쉽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어렵고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단순하고 분명하게 제시 될수록 듣는 사람은 이해가 쉬워진다.

둘째, 간결성이다. '한 마디로 제압하라'는 말도 있듯이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한다. 세단어로 할 수 있는 말을 네 단어로 늘려 쓰지 말아야 한다. 최고의 광고 제작자들은 이러한 적절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한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기고 짧은 것이 긴 것을 이기고 단순한 것이 복잡한 것을 이기고 때로는 시각적인 것이 다른 모든 것을 이기기도 한다.

셋째, 신뢰성이다. 말에 진실성이

부족하거나 그 말이 일반적인 사실, 환경, 인식과 모순되면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어느 물품도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야 그 제품을 구입하는 것과 같다. 절제되지 못한 언어로 과장된 약속들을 늘어놓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게임이라 할 수 있다. "당신의 말이 곧 당신이며, 당신이 곧 당신의 말이다." 라는 교훈이 있다. 신뢰를 쌓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혹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말하고 그 후에는 정말로 그 사람이 되어야 자신이 하겠다고 한 일을 행하여야 한다.

넷째, 일관성이다. 기업들은 브랜드 성공을 위해 메시지의 일관성이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인다는 규칙이다.

메시지의 반복은 정치연설에서도 중요하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도 그 말을 처음 하는 것 같은 즐거움으로 하면 그 말을 처음 듣는 자들

은 호감을 갖는다. 다섯째, 참신성이다. 효과적인 언어는 낡은 개념에 새로운 정의를 부여할 때 탄생한다. 충격적이거나 놀랍지 않으면 금방 다른 것으로 관심을 돌린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들에게는 낡은 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놀라움과 흥미로움이 조합되면 누구라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가 탄생한다. 이런 때는 종종 유머가 결합여지기도 한다. 사람들이 "그거 틀렸는데?" 라는 반응을 보이면 메시지가 성공한 것이다.

여섯째, 리듬감이다. 말의 소리와 짜임새는 그 말이 담고 있는 내용 만큼이나 확실하게 기억에 남아야 한다. 음악은 미술 같은 힘을 지니고 있어서 강조하고자 하는 언어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언어의 리듬은 그 자체로 음악적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소리로 각인 시켜야 한

다. 일곱 번째, 흡입력이다. 흡입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독려하고 지켜 세우고 촉구하라는 것이다. 메시지는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담겨있어야 한다. 비즈니스계나 정치계에서는 흡입력 있는 언어를 성공적으로 구사하는 핵심 메시지를 개인화하고, 인간화 하여 감정적인 기억을 유발하는 것이다. 행동을 촉구 할 때도 흡입력 있는 메시지를 활용하면 좋다.

여덟 번째, 시각화이다. 대중에게 먹히는 말은 무엇보다 듣는 사람이 언어를 통해 선명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스피치에서 시각화 과정을 일으키는 단어가 바로 상상이다.

수많은 사람들 각자에게 맞는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암시를 주는 유일한 단어가기 때문이다. 상상이라는 단어는 가장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도구 일 것이다. 우리는 영화, TV, 광고판, 인터넷 등을 통해 너무 많은 자극을 받고 있다.

위와 같이 효과적인 언어규칙을 잘 활용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잘되고, 자기의 의견, 주장 등을 잘 전달하여 호감과 공감을 얻어 어느 조직에서나 성공의 스피치 생활을 할 수 있다. 이제 스피치를 무의식으로 하지 말고 준비하고 생각하는 스피치를 하자.

김양욱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사설

전북도, 당면 현안 해결 위해 힘내야

전북도는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힘내야겠다. 지금의 당면 현안은 새만금 사업의 속도 내기와 군산조선소의 재가동과 혁신도시의 활성화이다. 송하진 도지사가 이번엔 전북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가진 비밀 회동에서 그에 대해 얼마만큼이나 심도 깊게 대화를 나누었는지 궁금하다. 당면 현안 세 현안은 매우 중요했는데 전북도는 그걸 해결하기까지 염두에 두어야겠다. 언제 어느 때고 지역 발전을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오늘날이다.

전북도에게 예전에 했던 말을 다시 또 반복하는 이유가 있다.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처럼 건축 재정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사하고 있다기는 지역 발전을 위한 세 가지 현안 사업들이 큰 도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결같이 우리 전북 지역의 미래를 약속하는 것들인데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면 곤란하다.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너무 낙후돼 있다. 조금씩 발전했다고는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체 비교일 뿐이기에 별로 의미가 없다. 전북도는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하면 뒤쳐져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실어야 한다. 그러려면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항상 중심 주제로 삼아야 한다. 새정부가 어떻게 잘 해주겠지 믿고서 손을 놓아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도지사와 국무총리가 가졌던 비밀 회동의 내용이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됐으면 한다. 나중에 도민의 뜻에 반하는 변명이나 보고가 나와서는 안 되겠기에 하는 말이다.

전북도 고위직에 있는 이들의 책임은 막중하다.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이들은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그리고 뛰어야 한다. 뛰지 않으면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를 상대로 부당한 행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북도는 우리 전북 지역의 미래를 약속하는 사업이 새만금 사업 말고 또 뭐가 있는 지 생각해야겠다. 다른 현안 사업들도 추진을 위해서 힘내야 한다는 격려이다.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지원 꾸준해야

전북도가 소상공인 돕겠다고 나선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2천1백억 원의 자금으로 소상공인의 창업을 도우면서 경영 안정 자금도 지원한다고 했던 거 말이다. 이제 그 실적 보고가 있어야지 싶다. 도내 소상공인들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최근 들어서도 힘들어 했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도내 1만3천 개 기업을 위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는데 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보고가 있어야겠다.

전북도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 소상공인들은 한결같이 체감 경기를 안 좋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도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경기가 악화될지도 모른다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새정부가 많은 희망을 말하고 있음에도 그러나 심각한 일이다. 디플레이션이라면 물가라도 잡혀야 하는데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새정부가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난관이 아주 없다고 말할수 없는 오늘날이다. 전북도가 어려운 중에 영세상인들과 함께 가는 행보를 보여줬

음은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여기 더 당부할 게 있다.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이들이 아직도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중소기업인과 영세상인을 상대로 갑질을 하던 이들 말이다. 지금도 그러다면 정말이지 곤란하다. 그같은 갑질 행위는 오래 전부터 지탄의 대상이었다. 아직도 그 못된 방식이 용납되고 있다면 바로 잡아 마땅하다. 전체 소상공인 30% 정도가 적자 상태라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돈을 내주는 쪽에서는 자기 욕심부터 챙기고 들었는데 이제 그 따위 짓거리는 근절돼 마땅하다.

금융위에서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갑질 행위에 대해 처벌하기로 했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를 냈는지 궁금하다. 그동안 가진 자들의 갑질 횡포가 지탄의 대상이었는데 단지 지탄만 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 전북도는 도내 소상공인들과 영세 상인들의 호소에 귀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인센티브를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에게 주어야겠다. 어려워도 용기를 내 계속 일하도록 동기를 심어주어야 한다는 당부이다.

독자제언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의무화 법 시행

아이가 몇 시간동안 홀로 통학버스에 남겨져 방치돼 질식사하거나 의식을 잃는 안전사고는 수차례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해왔다. 이렇듯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해 소중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아 온 것이다.

과도하게 젊은 통학차량의 선풍기는 어린이들이 통학차량에 갇히게 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아이가 안에 있는지 확인하기조차 힘든 선풍기로 인해 지나가던 행인이 차량속 방치되어 있는 아이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번 6월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인 의무화됨으로써 반복되던 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어른들의 책임감이 커졌다.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 종료 시 반드시 차량에 남아있는 어린이가 없는지, 어린이의 하차를 확

인한 후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벌점 30점과 12만원의 범칙금(승합차 13만원)이 부과된다. 아이가 사망하거나 다쳐야만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기존과는 달리 운전자의 책임과 처벌이 강해진 것이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운전자 포함 모든 종사자들은 항상 긴장해야하고 아이들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통학차량 안전관리는 '승하차시 안전 확인 의무'를 포함한 '세입이법' 시행에 의해서 이년부터 주의가 요구되어 왔지만 어른들의 안일함으로 인해 잘 지켜지지 못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막지 못했다. 여름은 더운 날씨로 인해 아이가 차량에 방치 될 경우 더욱 위험할 수 있기에 처벌을 피하기보다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하는 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이다.

김소정 고령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독자제언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

얼마 전 방송매체에서 대학원에 다니는 앞날이 창창한 대학생이 음주 사고를 당해 다리를 삼하게 다쳐 평생 의족에 의지 한 채 불구로 살아가야 하는 가슴 아픈 사연이 방송되었다.

이 사고로 모든 꿈과 희망이 좌절되었으며 자신의 처지에 대해 절규를 하였다. 또한 이러한 음주사고는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이렇게 불의의 음주사고로 사랑하는 이들의 가족들은 소중한 부모, 자식들을 잃고 이부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음주사고로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은 의지 할 곳 없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자신보다 더 아끼던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자식을 잃은 아픔을 가슴에 평생 묻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한잔정도는 괜찮겠지"하는 인기

적인 생각이 이렇듯 소중한 이들의 생명과 삶을 파탄으로 초래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경찰은 '음주운전사범 처벌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발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구형 기준을 강화하고 동승자 등 방조범도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도 있지만 운전자 개개인의 확고한 의지도 필요하다.

필자의 경우 술자리에는 아예 차를 가져가지 않기로 다짐하고 지키고 있다. 아울러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인 동시에 자살행위임을 명심하고 순간의 실수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박재원 전북경찰청 경찰관리과대 순경

서와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